

아버지의 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athers' Characteristics on the Creativity of Gifted and Non-gifted Preschool Children

위덕대학교 교육학부 유아교육전공
전임강사 이 순 북

Division of Education, Uiduk University
prof. : Lee Soon B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ther's characteristics on the creativity of gifted preschoolers and nongifted preschoolers. Father's personality, creative personality and parenting self-efficacy were included in father's characteristics.

The study subjects were 96 gifted and 180 non-gifted preschoolers and their fathers. Instruments were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Torrance, 1984: Kim *et al.*, 2002), 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Costa & McCrae, 1992), What Kind of Person Are You Scale of the Khatena-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Khatena & Torrance, 1976: Kim *et al.*, 2004), and Parenting Efficacy Scale(Choe *et al.*, 2001). The results showed that extroversion, healthy ability and disciplined ability of the gifted preschoolers' fathers influenced the children's fluency of creativity, while the disciplined imagination of gifted preschoolers' fathers influenced children's elaborateness of creativity. Regarding non-gifted children, the intimacy of the non-gifted preschoolers' fathers influenced the children's fluency of creativity, the general parenting ability of non-gifted preschoolers' fathers influenced children's abstractness of titles of creativity, the general parenting ability of non-gifted preschoolers' fathers the influenced children's elaborateness of creativity, and general parenting ability and learning guidance ability of non-gifted preschoolers' fathers influenced the children's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of creativity.

주제어(Key Words): 영재유아(gifted preschooler), 일반유아(non-gifted preschooler), 창의성(creativity), 성격(personality), 창의적 성격(creative personality),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I. 서론

현대사회가 바라는 중요한 인간상의 하나는 독창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거론되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재 교육, 수월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층적인 영역에서 영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6월 30일 고시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6차 유아교육 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중점적 교육목표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8). 이러한 교육목표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영재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교육부, 2002),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는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초등·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 22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발표(교육부, 2004)로 인해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의 잠재성 극대화 교육은 현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지식정보화 세계의 고급 두뇌 양성이 한 나라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기대에 맞춰 영재아에 대한 창의성 계발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발굴과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1999, 제2조 2항)에서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21세기의 영재교육은 고급 두뇌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국가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한다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재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어 왔다(신지은, 한기순, 정현철, 박병건, 최승언, 2002; Gowan, 1978). Renzulli(1986)는 영재는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Above Average Ability)과 창의성(Creativity), 과제집착력(Task Commitment)의 3요인을 공유해야 하는데, 영재성의 근본이 되는 요소는 창의성이라 말했다. Feldhusen(1986)은 영재를 정의하는 네 영역 즉, 높은

수준의 능력, 자아개념, 동기유발, 창의성 등의 하나로 창의성을 언급했고, Davis와 Rimm(1989) 역시 창의성을 영재 판별의 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Tannenbaum(1983)은 창의적인 성취를 이룬 성인을 영재라 보고, 영재와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창의성을 영재성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배혜선(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재성 총점, 영재성 하위요인과 창의성의 측정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Millgram과 Millgram(1976)의 연구에서도 지적으로 우수한 아동과 비 우수아동 두 집단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미치는 지능의 효과에서 지능이 창의성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영재가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계발시켜 나가는 데는 창의성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재성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지능만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반면 영재판별이 아닌 영재교육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창의성의 개념, 정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왔지만, 영재 유아와 일반유아간 창의성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전경원, 2005). 따라서 영재유아와 일반유아 사이에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알아보는 연구는 영재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효과적인 유아영재교육을 위해 영재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들(Amabile, 1989; Tegano, Moran, & Sawyers, 1991)은 유아기가 창의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을 동의하고 있다. 유아기는 창의성 및 상상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되고, 유아의 창의적인 상상력은 4세부터 4세 반 사이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며, 유아기의 환경이 학업에 대한 압력이 없고, 부모와의 접촉 시간이 길며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특성을 밝히기에 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Torrance, 1976). 학령기 아동은 유아들에 비해 학교에서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동하고 교사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하는 반면, 유아는 자신의 호기심이나 흥미에 따라 탐구학습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창의성 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Meeker, 1978)이다. Runco(1999)는 아동은 9세 경이 되면 관습이나 또래로부터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아동이 독창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기는 학업과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아동이 창의성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험은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보인다(김판희, 2001).

영재성은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 등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능적인 차이에 영향을 준다(Kagan & Havrean, 1978). 영재아들의 타고난 능력은 부모의 적절한 사회·정서적 지지와 연결해 자극을 줄 수 있는 인지적 환경을 제공해 줄 때 풍부해진다(Carole & Karen, 1997). 영재아는 일반아보다 사회·정서적 자극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영재아의 성취나 적응은 일반아에 비하여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전정원, 2005). 이는 최근의 영재의 정의가 단일 개념에서 다중 개념(Gardner, 1983; Renzulli, 1986)으로 판별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의 영재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선천적·후천적 요인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특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가정의 교육적 배경, 부모의 태도, 양육방법 등은 영재성을 통한 재능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Alvino, 1985). 자녀의 다양한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로서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며, 과제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아동들은 문제의 대안을 더 잘 생각한다거나 또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창의적 성격과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유아들에게 가장 먼저 접하는 환경이면서, 사회화되고, 영

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모 변인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졌으나(문현상, 이안님, 2001; 이순복, 전귀연, 2005; 정동희, 2003), 어머니 외의 가족 형성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포함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가족형태가 점차 핵가족, 소가족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Bridges, Connell, & Belsky, 1988; MacDonald & Parke, 1984; Parke & Tinsley, 1987)은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 결코 미약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양육 행동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전한 유아발달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이 유아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러 주장들을 바탕으로 하여 유아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재들의 성격에 대한 연구(배미란, 2002; 한기순, 2003), 성인의 성격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Laura, Lori, & Sheri, 1996)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재들의 영재성과 창의성 발현에 어머니의 어떤 성격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몇 가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서 창의성 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어머니의 창의적인 성격 중 타인에 대한 의식 요인 외의 유아의 창의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순복과 전귀연(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현상과 이안님(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융통성, 독창성과 상상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위운(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서의 통제유형이나 어머니의 성격유형 및 가정에서의 심리적인 환경요인들이 자녀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창의성의 하위요인 영역들도 많은 영향

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정동희(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타인에 대한 의식 요인이 자녀의 독창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요인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격 및 창의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성격이론을 가장 잘 요약한다고 인정(Digman, 1990)되는 성격의 5요인과 창의적 성격이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간에 차이가 있는지,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5요인 성격 이론은 정서, 대인관계, 경험, 태도, 동기유형의 개인차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성격 검사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경증이나 정서적 불안정성 같은 임상적인 정보 또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의 신경증 요인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 영재유아 아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것이 영재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의 전반적인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의 인지적인 요인과 창의성과의 관계 또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양육의 인지적인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효능감 요인(Coleman & Karraker, 1998; Johnston & Mash, 1989)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Bornstein and others; 최형성, 2001 재인용)에서 인지적인 영역이 높은 영재유아에게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해 어떠한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영재유아의 창의력 발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재유아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영재유아 및 일반유아의 창의성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고,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아버지의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창의성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은 차이가 있는가?
2.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특성(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3. 아버지의 특성(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3-1. 영재유아 아버지 특성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3-2. 일반유아 아버지 특성이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 5세 영재유아 96명, 일반유아 180명과 그 아버지 각각 96명과 180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대구, 포항 등 3개의 시에 소재한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유아들로 지능 및 여러 가지 측면의 영재판별검사를 통해 선발된 유아들이었다. 더불어 대부분 부모 또는 교사의 추천, 부모용 영재행동특성 체크리스트 작성, 부모와의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영재 판별을 받은 유아들이었다.

광의의 영재(gifted) 아동은 일반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동(교육부, 2002)이다. 협의의 영재는 지적인 영재로 정의(박혜원, 2001)되고 있다. 보통 지적인 영재는 지능검사에서 '매우 우수' 범위에서 점수를 받은 지적으로 우수한 자로 정의(Bisno,

1996)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적인 가능성을 고려(전경원, 2003)하고, 최근의 동향인 영재아를 영재교육 가능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상위 10-15%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Gagne, 1993; Renzulli, 1986; 윤여홍, 2000)과 일치해, WPPSI, WISC-III, K-ABC 등의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상위 약 15%이내에 포함되는 유아를 선정하였다.

일반유아는 서울, 대구, 포항 등 3개의 시에 소재한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로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면서 교사나 부모의 추천으로 영재유아로 지각되는 유아는 먼저 부모용 영재행동특성 체크리스트(송인섭, 김진희, 1996)를 실시하여 영재성이 보이는 유아는 개별적으로 WPPSI 지능검사를 통해 상위 15% 범위 안에 속하는 유아는 제외시킨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유아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성별 분포

변인	구분	영재유아	일반유아	전체[빈도(%)]
연령	4세	44(15.9)	85(30.8)	129(46.7)
	5세	52(18.8)	95(34.4)	147(53.3)
성별	남	62(22.5)	90(32.6)	152(55.1)
	여	34(12.3)	90(32.6)	124(44.9)
전체		96(34.8)	180(65.2)	276(100.0)

2. 측정도구

1) 창의적 사고 검사

이 검사는 Torrance(1990)가 개발한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로서, 유치원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 검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채(2002)에 의해서 번역되고 한국판의 채점기준과 규준이 제작된 도형 검사 A형을 사용하였다.

TTCT검사는 동형검사로서 언어 검사(TTCT-Verbal A·B형)와 도형 검사(TTCT-Figure A·B)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검사에는 질문과 추측(ask and guess), 독특한 사용법(unusual uses: A형-마분지상자, B형-깡통), 독특한 질문법(unusual question), 가상적 사건(just suppose)으로 구성되었고, 도형검사는 그림 구성(picture construction), 그림완성(picture completion), 그리고 선(line: A형)과 원(circle: B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검사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검사 점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아일 경우 언어의 습득도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비교적 배제될 수 있는 도형검사를 실시했다.

도형검사(A형)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 소요 시간은 각 문항이 10분씩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검사이나, 질문을 읽어주고, 언어의 기초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진 유아와 기초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들이 섞여 있어 TTCT 검사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진

<표 2> 연구대상 유아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영재유아 아버지	일반유아 아버지	전체 [빈도(%)]	변인	구분	영재유아 가족	일반유아 가족	전체 [빈도(%)]
연령	35세미만	17(17.7)	48(26.9)	65(23.7)	가계 총소득	101-200만	3(3.1)	48(26.6)	51(18.5)
	36-40세	59(61.5)	88(49.2)	147(53.5)		201-300만	14(14.6)	61(33.9)	75(27.2)
	41-45세	17(17.7)	40(22.3)	57(20.7)		301-400만	28(29.2)	39(21.7)	67(24.3)
	45세이상	3(3.1)	3(1.7)	6(2.2)		401-500만	17(17.7)	22(12.2)	39(14.1)
						500만초과	34(35.4)	10(5.6)	44(15.9)
학력	고졸이하	2(2.1)	53(29.7)	54(19.7)	직업	생산노무직	3(3.1)	37(20.7)	40(14.5)
	전문대졸	7(7.3)	35(19.6)	42(15.3)		판매서비스	2(9.4)	37(20.7)	47(16.7)
	대학교졸	60(62.5)	77(43.0)	138(50.2)		사무직	15(15.6)	45(25.1)	60(21.8)
	대학원졸	27(28.1)	14(7.3)	41(14.9)		관리직	26(27.1)	34(19.0)	60(21.8)
						전문직	43(44.8)	26(14.5)	68(25.1)

본 연구자와 라이선스를 가진 다른 연구자의 도움으로 완성하게 하여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채점은 2002년에 개정된 간단 채점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창의성 점수 각 하위요인별 -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점수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TTCT의 창의성 평가표에서 유아용이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 표준 점수를 이용하지 않고 원점수를 이용했다. 채점된 창의성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채점은 TTCT 검사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진 본 연구자와 라이선스를 가진 다른 연구자 1인이 각각 채점하였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유창성의 Cronbach's α 는 .99이며, 독창성의 Cronbach's α 는 .98이며, 제목의 추상성의 Cronbach's α 는 .98이며, 정교성의 Cronbach's α 는 .98이며,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Cronbach's α 는 .97 등이었다.

2) 아버지의 특성

(1) 성격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cCrae(1985)가 개발하고 이후 1992년 재수정한 NEO-PI-R(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번역하고 안창규(1995)의 연구 척도를 참고하여 사용했다. 이 검사는 5가지의 성격 요인 즉, 신경증(48문항), 외향성(48문항), 경험에 대한 개방성(48문항), 친화성(48문항), 성실성(48문항) 등을 측정하는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6세 이상의 남녀에게 실시할 수 있다. 지각한 성격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격 요인별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신뢰도는 신경증의 Cronbach's α 는 .88이며, 외향성의 Cronbach's α 는 .86이며, 개방성의 Cronbach's α 는 .88이며, 친화성의 Cronbach's α 는 .79이며, 성실성의 Cronbach's α 는 .89 등이었다.

(2) 창의적 성격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

해 김영채(2004)가 번역한 카테나-토란스 창의적 성격 검사(Khatena-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 KTCP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제I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검사(What Kind of Person Are You? : WKOPAY)와 제II부: '어떤 나의 모습' 검사(Something about Myself: SAM)라는 두 가지 창의적 성격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I부의 창의적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이유는 WKOPAY와 SAM검사는 창의성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로 독립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같이 사용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WKOPAY는 검사의 매뉴얼에서 밝혀진 바대로 한국에서 전국에 걸쳐 표집된 초·중·고등학생, 성인 그리고 영재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이다.

제I부 WKOPAY의 신뢰도는 .71~.97이고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는 .76이다. WKOPAY의 측정 요인은 하위척도 즉, 권위의 수용(7문항), 자신감(12문항), 탐구심(6문항), 타인에 대한 의식(11문항), 적극적인 상상력(9문항) 5개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창의적인 질문만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상상력, 비창의적인 질문만을 제시하는 권위의 수용 등 2개의 하위요인만 측정하였고, 점수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하위척도 5개 중 일부만 사용한 이유는 나머지 다른 3개의 하위요인은 창의적인 문항과 비창의적인 문항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최형성(2001)이 Dorsey(1999), Allen(1993), Johnston & Mash(198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는 데도 별 무리가 없다는 아동가족학과 교수 2명에 의한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 등이며,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양육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양육효능감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의 Cronbach's α 는 .89이며,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Cronbach's α 는 .86이며, 의사소통능력의 Cronbach's α 는 .87이며, 학습지도능력의 Cronbach's α 는 .88이며, 훈육능력의 Cronbach's α 는 .76 등이었다.

3. 연구절차

대상자들은 본 연구자가 영재교육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창의성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상담한다는 전달사항을 전하고 난 후, 동의를 한 아버지와, 그 자녀 4, 5세인 영재유아, 일반유아로 각각 100명, 20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창의성 검사, 부모의 설문지를 실시했다. 그 후 무성의한 결과지를 제외한 결과를 통계처리하였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중 교사나 부모의 추천으로 영재유아로 지각되는 유아는 먼저 부모용 영재행동특성 체크리스트(송인섭, 김진희, 1996)를 실시하여 영재성이 보이는 유아는 개별적으로 WPPSI 지능검사를 통해 상위 15% 범위 안에 속하는 유아는 제외시킨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4. 통계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PC+ version 13.0을 통해 분석되었다.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 특성들의 하위요인별 문항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으며,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 성격, 양육효능감 등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아버지의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에 의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분석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산출 및 두 집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5개 하위요인 즉, 유창성($t=5.872$, $p<.001$), 독창성($t=6.448$, $p<.001$), 제목의 추상성($t=6.517$, $p<.001$), 정교성($t=7.412$, $p<.001$), 종결에 대한 저항($t=6.370$, $p<.001$) 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의 각 요인들은 영재유아들의 창의성 각 요인이 유의미하게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검증결과 (N=276)

하위요인	집 단	인원(n)	평 균	표준편차	t
유창성	영재유아	96	23.938	6.0989	5.872***
	일반유아	180	19.356	6.2146	
독창성	영재유아	96	17.708	5.8758	6.448***
	일반유아	180	13.289	5.1670	
제목의 추상성	영재유아	96	5.781	5.2238	6.517***
	일반유아	180	2.339	3.5013	
정교성	영재유아	96	11.948	3.8699	7.412***
	일반유아	180	8.444	3.6696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영재유아	96	7.427	3.4966	6.370***
	일반유아	180	4.306	4.0652	

*** $p<.001$

2.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특성 분석

영재유아의 아버지와 일반유아의 아버지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성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M_1=3.32$,

〈표 4〉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 특성의 t-test 분석 결과

변인	하위요인	분류	평균	표준편차	t-값
성격	신경증	영재유아 아버지	2.73	.39	-1.791
		일반유아 아버지	2.81	.31	
	외향성	영재유아 아버지	3.31	.34	.924
		일반유아 아버지	3.27	.29	
	경험에 대한 개방성	영재유아 아버지	3.32	.34	3.852***
일반유아 아버지		3.14	.31		
친화성	영재유아 아버지	3.31	.27	-.404	
	일반유아 아버지	3.32	.24		
성실성	영재유아 아버지	3.63	.32	2.285*	
	일반유아 아버지	3.53	.34		
창의적 성격	권위의 수용	영재유아 아버지	1.84	1.61	-1.726
		일반유아 아버지	2.19	1.57	
	상상력	영재유아 아버지	4.74	2.15	.798
		일반유아 아버지	4.53	1.83	
양육효능감	전반적인 양육능력	영재유아 아버지	3.61	.48	1.212
		일반유아 아버지	3.53	.51	
	건강양육 능력	영재유아 아버지	4.16	.47	1.722
		일반유아 아버지	4.05	.55	
	의사소통능력	영재유아 아버지	3.84	.48	1.264
일반유아 아버지		3.76	.47		
학습지도능력	영재유아 아버지	3.35	.68	.509	
	일반유아 아버지	3.31	.63		
훈육능력	영재유아 아버지	3.70	.58	.052	
	일반유아 아버지	3.69	.49		

*p<.05, ***p<.001

M₂=3.14), 성실성(M₁=3.63, M₂=3.53)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창의적 성격과 양육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등은 영재유아 아버지들이 일반유아 아버지들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 특성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

아버지 특성(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한 결과(〈표 5〉, 〈표 6〉 참고),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수는 .6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보통 상관계수 r값이 .70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이 채택되어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들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특성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창의성 변인 중 하위요인 즉,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영재유아 아버지의 특성에 해당하는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영재유아 아버지 특성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

영재유아 아버지의 특성 변인의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 중 유창성, 정교성 등 2가지

〈표 5〉 영재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격	1.신경증												
	2.외향성	-.36**											
	3.개방성	-.19	.58**										
	4.친화성	-.13	.64	-.10									
	5.성실성	-.51**	.40**	.34**	-.24*								
창의적 성격	6.권위수용	.04	-.18	-.23*	.34**	-.06							
	7.상상력	-.06	.49**	.36**	.00	-.06	-.52**						
양육 효능감	8.양육능력	-.36**	.42**	.22	.12	.26*	-.13	.16					
	9.건강능력	-.25*	.40**	.28*	.05	.33**	-.06	.04**	.52**				
	10.의사소통	-.36**	.47**	.41**	.05	.35**	-.07	.15	.62**	.54**			
	11.학습지도	-.21*	.25*	.25	-.05	.31**	.07	-.13	.36**	.40**	.51**		
	12.훈육능력	-.25*	.20	.09	.03	.31**	.11	-.08	.54**	.52**	.53**	.61**	

*p<.05, **p<.01

〈표 6〉 일반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격	1.신경증												
	2.외향성	-.42**											
	3.개방성	-.23*	.50**										
	4.친화성	-.19*	.09	.17*									
	5.성실성	-.53**	.38**	.32**	.19*								
창의적 성격	6.권위수용	.22**	-.16*	-.16	.22**	-.22**							
	7.상상력	-.34**	.25**	.20*	.04	.23**	-.36**						
양육 효능감	8.양육능력	-.42**	.29**	.10	.07	.43**	-.07	.01					
	9.건강능력	-.31**	.30**	.28**	.17*	.35*	-.03	.02	.61**				
	10.의사소통	-.31**	.40**	.24**	.12	.38**	-.01	.07	.58**	.60**			
	11.학습지도	-.28**	.21**	.32**	.03	.25**	-.02	.07	.60**	.47**	.45**		
	12.훈육능력	-.26**	.30**	.15	.09	.31**	-.02	.04	.49**	.56**	.49**	.50**	

*p<.05, **p<.01

〈표 7〉 영재유아 아버지의 특성 변인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R	R ²	F
유창성	성격/외향성	-8.394	-.427**	.522	.273	5.631*
	양육효능감/건강양육능력	8.507	.490**			
	양육효능감/훈육능력	-4.004	-.309*			
정교성	창의적성격/상상력	.641	.373**	.373	.139	9.055**

*p<.05, **p<.01

〈표 8〉 일반유아 아버지의 특성 변인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R	R ²	F
유창성	성격/친화성	-6.538	-.231*	.231	.053	5.129*
추상성	양육효능감/양육능력	-1.347	-.229*	.229	.052	5.022*
정교성	양육효능감/양육능력	-1.767	-.260*	.260	.067	6.580*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양육효능감/양육능력	-3.604	-.383**	.289	.084	4.021*
	양육효능감/학습지도	2.305	.268*			

* $p < .05$, ** $p < .01$

하위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영재유아 아버지의 성격 중 외향성, 창의적 성격 중 상상력, 양육효능감 중 건강양육능력, 훈육능력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재유아 아버지의 외향성($\beta = -.427, p < .01$), 건강양육능력($\beta = .490, p < .01$), 훈육능력($\beta = -.309, p < .05$) 등이 유창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재유아 아버지의 상상력($\beta = .373, p < .01$)이 정교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유아 아버지가 외향성이 낮을수록, 건강양육능력이 높을수록, 훈육능력이 낮을수록 영재유아의 유창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유아 아버지의 외향성, 건강양육능력, 훈육능력은 유창성의 27%($R^2 = .27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유아 아버지의 상상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정교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유아 아버지의 상상력은 14%($R^2 = .13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유아 아버지 특성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

일반유아 아버지의 특성 변인과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창의성 하위요인 중 유창성,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등 4가지 하위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유아 아버지의 성격 중 친화성, 양육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학습지도능력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 아버지의 친화성($\beta = -.231, p < .05$)이 유창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능력($\beta = -.229, p < .05$)이 추상성 요인에, 전반

적인 양육능력($\beta = -.260, p < .05$)이 정교성 요인에, 전반적인 양육능력($\beta = -.383, p < .01$)과 학습지도능력($\beta = .268, p < .05$)이 종결에 대한 저항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유아 아버지가 친화성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유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아버지의 친화성은 5%($R^2 = .05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추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5%($R^2 = .05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아버지가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정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7%($R^2 = .06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유아 아버지가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을수록, 학습지도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유아의 종결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학습지도능력은 8%($R^2 = .08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재유아와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특성의 차이,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유아의 창의성을 설명해 주는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들 중 아버지의 성격, 창의적인 성격,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해 보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 5개 하위요인 즉,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 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유아의 창의성이 일반유아의 창의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만 4,5세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영재성과 창의성의 전체 및 하위요인별 관계성을 살펴본 배혜선(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지적으로 우수한 아동과 비 우수아동 두 집단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미치는 지능의 효과에서 지능이 창의성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Millgram과 Millgram(197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에 재원중인 유아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있는 유아들이라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사실상 영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고등사고능력 향상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창의적인 과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순복, 전귀연, 2005)이므로 창의적인 과제를 많이 접하지 않은 유아들보다 창의성 요인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특성 중 성격, 창의적 성격,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성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창의적 성격과 양육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성격 중 개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유아 아버지들이 일반유아 아버지들보다 자녀양육 시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연구대상을 어머니로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문헌상과 이안남(2001)의 연구에서 유아의 창의성이 어머니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논문과 일치한다.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독창성, 상상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개방성은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며, 감정이 풍부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지적 호기심이 많은 정도를 의미한다. 영재유아 아버지들이 평소 상상력을 많이 지니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 유아의 창의성을 잘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아버지가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아동에게 보다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 주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녀는 다양한 자극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풍부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의 성격 중 성실성에서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유능감, 정연성, 충실성, 성취에 대한 갈망, 자기 규제성, 신중성 등의 영역(안창규, 1995)이다. 영재유아 아버지는 일반유아 아버지보다 과제에 대한 조직력이 높으며, 성취 욕구가 강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의지가 굳고,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영재유아의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과 양육효능감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창의적 성격은 창의적 사고 기능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동기나 태도 등이다. 이러한 창의적 성격 영역은 어려운 과제를 해 보려고 노력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것은 끝을 내며, 일을 열심히 하고, 모험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의 창의적인 면과 복잡적이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며, 힘있는 사람을 쉽게 인정하고 수용을 측정하는 권위의 수용을 나타내는 비창의적인 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김영채, 2002). 이러한 요인에서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는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사회에서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부모의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유한다기보다는 어머니에게 그 역할의 책임감을 전담시키는 경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어머니보다 낮기 때문에(은주영, 류도희, 이귀옥, 2001),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하는 면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인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

만유아 아버지가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신동의 연구(2002)에서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가 양육참여시간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에서 유추해서 볼 때,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관계로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 및 양육효능감 영역에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영재유아 아버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재유아 아버지가 외향성이 낮을수록, 건강양육능력이 높을수록, 훈육능력이 낮을수록 영재유아의 유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재유아 아버지가 상상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정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향성은 온정, 사교성, 주장, 활동성, 긍정적인 정서 등의 영역(안창규, 1995)이다. Takacs(1986)는 독립성, 호기심, 유연성을 길러주는 부모의 온정성과 애정, 수용과 관여는 창의적인 생산성을 이끄는 성격 특징이며, 창의적인 산출물을 내는 동기적 요인의 모델링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연구자가 연구한 논문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격과 유아의 창의성 요인과의 관계 연구가 거의 없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BTI 성격 검사를 척도로 조사한 문헌상과 이안남(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제시한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성격유형이 조용하고 과묵하고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도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성격 유형(MBTI성격 유형 중 ISTP 유형)에서 유아의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영재유아 아버지들이 다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며, 집단에서 종종 배정의 역할을 좋아하고, 활동성이 다소 느리고, 이완되어 있으며, 정서가 격정적이지 않는 성격 등의 성격이 영재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재유아 아버지의 건강양육능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유창성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재아의 부모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알기 위해 ERIC(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Center)에

서 1990년에서 2001년 10월 사이에 발표된 영재아의 부모와 관련된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성연(2001)의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영재부모는 영재아는 조기의 자극(Early Stimulation)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좋은 영양상태(Good Nutrition), 조기에 읽기(Read to at Early Age), 유전적 요인(Genetics) 등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좋은 영양상태는 양육효능감 중 좋은 건강양육능력 요인의 한 부분과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영재아의 부모들은 학업성취도에 가치를 두기보다 그들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Bloom, 1985)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신의 건강 중 자녀의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과 가족에 관계해 중단연구를 한 Brooks(197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녀들이 21개월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격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창의적인 아들에게 정서적 지지나 친밀감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지만, 부모들은 아들들의 신체적 요구(physical needs)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이고, 규율이 있는 가정적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재유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양육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서 유아의 건강에 관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영재유아 아버지의 강한 양육신념이 유아 창의성 중 유창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재유아 아버지의 훈육능력이 낮을수록 영재유아의 유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Torrance와 Goff(1990), Robinson(1993)이 주장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창의성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로 여기고,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응답에 의해 억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아동들은 실수라는 것이 새로운 학습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수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져야 하며, 부모들이 그들이 실수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Smutny, Veenker, Veenker, 1989).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동들이 실수의

개념을 가치있는 실험으로써 이해하도록 아동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cey(1989)는 창의성있는 청소년 1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 인터뷰를 통한 연구에서, 창의성이 높은 청소년은 아버지의 성공을 모방하려고 하고, 가족 구성원들은 아동들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거의 없으며, 정해진 가족 가치에 기초해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아동이 실수를 한다면 아동 스스로 알게끔 내버려두거나, 거의 벌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는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이지 않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영재유아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의 창의성 발현에 있어 필요한 요인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훈육능력은 자녀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영재유아 아버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도와 통제보다는 유아의 실수를 가치있는 하나의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필요하며, 덜 통제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유아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영재유아 아버지의 상상력이 높을수록 영재유아의 정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창의적인 영재아동의 부모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부모노릇을 하며 사고와 느낌, 상상력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영재 자녀를 키운다(김정휘, 2001; Getzel & Jackson, 1962)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상상력은 상상적이고, 권태를 느끼지 아니하며, 어려운 과제를 해 보려고 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것은 끝을 내며, 일을 열심히 하고, 모험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성격인데, 영재유아 아버지들이 능력에 도전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아에게 도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함으로써 유아의 정교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유아 아버지가 친화성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유창성이 높아지고, 일반유아 아버지가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며, 일반유아 아버지가 학습지도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유아의 종결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유아 아버지가 친화성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유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화성은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겸손, 동정 등의 영역(안창규, 1995)이며,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으로 남을 돕고자 하며, 이타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심하는 경향이 더 크고, 협동보다는 경쟁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으며,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며, 냉혹한 논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유형의 아버지들이 타인을 신뢰하고 관심을 가지고 순응적인 아버지들보다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유아 아버지의 친화성과 유아의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으로 인해 일반유아 아버지의 친화적인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유아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을수록 일반유아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Levene(198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와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과 민주적인 양육방식에 따른 부모양육방식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여 연구한 결과,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더 창의적인 것으로 보고한 논문과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조성연(1990)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권위,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 총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논문과 일치한다. Dewing과 Taft(1973)는 초등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 내용인데, 창의적인 아동의 아버지들은 창의성이 낮은 아버지들보다 민감하고, 독립적이고, 변덕스럽고, 비사교적이고, 걱정이 많고, 욕구불만이 많은 것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특성이 아동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삶에서 외로움을 일상적인 정도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논문의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유아가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유아에 일반화를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Tannenbaum(1983)은 아동의 창의성과 부

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문헌을 고찰하면서,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화된 부모 양육실제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특별한 부모 양육방식이 어떤 아동에게는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아동에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미치거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유아 아버지가 학습지도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유아의 종결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Clark(1986)은 유아의 보다 복잡한 지식을 구성하는 두뇌 안의 경로 및 연결고리의 생성은 학습경험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이러한 학습경험의 유형을 창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Alvino(1985)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유아를 스스로 탐구심을 유발시키고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료를 얼마나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습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가의 문제(조석희, 1987)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아는 가정환경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탐색하고자하는 욕구와 문제해결능력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 탐색하는 자세 등에 의해 창의적인 영재성 발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의 기대하였던 연구설계 중 신경증과 같은 정서적 안정성이나 적응의 수준 영역에서 영재유아 아버지와 일반유아 아버지의 성격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인데 영재유아 아버지, 일반유아 아버지의 신경증요인은 유아들에게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 부모의 긍정적인 성격특성이 창의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긴장적이고 차가운 감정의 소유자, 자기확신적(self-confidence), 센 기질, 자녀 거부 등의 부정적인 성격특성이 창의성과 관계가 있는 연구결과(Brooks, 1973)가 있고, 영재들의 정의적인 특성 중 정서적인 예민성, 과도한 흥분(Davis

& Rimm, 1989), 내향성,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비판,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 실존적 우울감(배미란, 2002; 윤여홍, 2000; Silverman, 1993) 등의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 등도 있어 영재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이제는 부모의 성격특성까지 확대시켜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부 교육계에서는 유아 영재 진단 평가의 고려점을 들어 유아영재교육에 대해서는 판별의 어려움 등의 이유(조용태, 2001)로 유아영재 판별의 한계점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며, 창의성 교육에 비해 유아영재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지나쳐 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영재성과 창의성과의 관계가 확인된 점이 큰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영재성을 판별할 때 지능만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창의성을 포함해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들의 내용(전경원, 2005)과도 부합될 수 있다.

둘째, 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아버지는 지지적인 환경 제공, 자녀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에 대한 격려, 교사로서의 역할 등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양육능력, 훈육능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유아를 전반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다는 지각이나, 유아를 잘 지도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여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영재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결국 영재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의 발달 환경과 가족이 자녀의 최상의 발달을 위해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결국 모든 가족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역 일반적인 창의성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언어, 예술, 정보 등 특수한 영역에서의 영재성을 가진 유아의 창의성, 부모의 보다 다양한 특성 등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초등학교 연계교육의 활성화 흐름에 맞춰 유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 창의성과 가정의 환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단기·중단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 교육부(2002).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04).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
- 김영채(2002). Torrance TTCT(도형) A형. 척도 Manual. 토란스 창의력 한국 FPSP/현곡 R&D.
- 김영채(2004).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척도 Manual. 토란스 창의력 한국 FPSP/현곡 R&D.
- 김정휘(2001). 영재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교육연구, 18, 61-109.
- 김판희(2001). 유아기 창의성에 관한 연구의 최근동향. 아동교육, 10(2), 105-122.
- 문현상, 이안남(2001).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창의성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생활지도 연구, 21(1), 77-94.
- 박혜원(2001). 지적 영재유아 판별의 절차와 과제. 영재교육연구, 11(2), 105-124.
- 배미란(2002). 5요인 인성모형에 기초한 과학영재들의 성격 연구. 연세교육연구, 15(1), 55-75.
- 배혜선(2003). 유아의 영재성과 창의성의 관계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구운, 윤정진, 황동주(2002). 유아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22(3), 313-338.
- 송인섭, 김진희(1996). 영재성 판별을 위한 행동특성검사. 한국영재연구원.
- 신지은, 한기순, 정현철, 박병건, 최승연(2002). 과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은 창의성에서 어떻게 다른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1), 158-175.
- 안창규(1995). NEO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기간행 발행물.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 일반, 19(1), 79-101.
-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323-334.
- 이순복, 전귀연(2005). 어머니의 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77-96.
- 이신동(2002). 영재와 평재의 가정배경과 양육특성 비교. 국제영재교육학회, 2(1).
- 전경원(2003). 유아 창의성 이해와 개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특별 초청강연회 강연회 자료집.
- 전경원(2005). 새로운 영재재능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 정동희(2003). 어머니의 창의적 성격과 유아의 창의성 및 인지처리양식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석희(1987).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 및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50, 60-64.
- 조성연(1990). 아동의 창의성 발달 및 이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태(2001). 유아 영재진단 평가 체제.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최성연(2001). 영재아의 부모 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표위운(1996).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창의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순(2003). 과학영재들의 사고양식과 5인성 요인간의 관계. 한국영재학회, 13(1), 43-63.
- Allen, E. C. (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Alvino, G. (1985). *Parent' guide to raising a gifted child; Recognizing and developing your child's potential*.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Amabile, T. M. (1989). *Growing up creative: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New York; Crown.
- Bisno, M. H. (1996). Memories of parental attitudes and child-rearing behaviors among the intellectually gifted and crea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Berkeley, Alameda.
- Bloom, B.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 Ballentine Books.
- Bornstein, M. H., Haynes, H.,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Painer, K., Pascual, L., Po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6.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92-100.
- Brooks, J. B. (1973). Familial antecedents and adult correlates of artistic interests in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41, 110-120.
- Carole A. M., & Karen K. C. (1997). *Parenting-a life span perspective*.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Clark, B. (1986). *Optimizing learning*. New York, NY: Merrill.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In S. R. Briggs & J. Cheek(Eds.), *Personallty Measures* (1). Greenwich, CT: JAI Press.
- Dacey, J. S. (1989). Discriminating characteristics of highly creative adolescent. *Journal of Cretive Behavior*, 23(4), 263-271.
- Davis, G, A., & Rimm, S. B. (1989).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ewing, K., & Taft, R. (1973). Som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of creative twelve-year ol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71-85.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orsey, S.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Feldhusen, J. F. (1986). *A Conception of giftedness*,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gne, F. (1993). *Constructs and models pertaining to exceptional human abilities*.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pp. 69-87), New York: Pergamon Press.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etzels, J. W., & Jackson, P. W. (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Exploration with the gifted child*. New York: Wiley.
- Gowan, J. C. (1978). Creativity and the gifted child movemen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2, 1-13.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agan, J., & Havreven. T. K. (1978). *The family*. New York: Norton. co.
- Laura, A. K., Lori, M. W., & Sheri, J. B. (1996). Creativity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89-203.
- Levene, E. B. (1984). Creativity and child-rearing: A Developmental analysi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1296.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ne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eeker, M. N. (1978). Measure creativity from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2(1), 52-61.
- Millgram, R. M., & Millgram, N. A. (1976). Group versus individual administration in the measurement of creative thinking in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47, 563-565.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 (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Inc.
- Renzulli, J. S. (1986). Identifying key features in programs for the gifted. *Exceptional Children*, 35, 217-221.
- Robinson, N. M. (1993). *Parenting the very young gifted child*. Monograph of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308-319.
- Runco, M. A. (1999). Developmental trends in creative abilities and potentials. In M. A. Runco, & S. R. Pritzker(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1, 537-540. CA: Academic Press.
- Silverman, L. K. (1993). *What we have learned about gifted children*. 1979-1995. Gifted Development Center, Denver, Co.
- Smutny J. F., Veenker, K., & Veenker, S. (1989). *How to recognize and develop the special talents in your child from birth to age seven*. New York, NY: Facts On File.
- Takacs, C. A. (1986). *Enjoy your gifted chil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New York: MacMillan.
- Tegano, D., Moran, J., & Sawyers, J. (1991).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National Educ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 Torrance, E, P. (1976). Khatena-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 김영채(번역, 2000). Khatena-Torrance 창의적 성격검사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Torrance, E, P. (1984).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Torrance, E. P., & Goff, K. (1990). *Fostering academic creativity in gifted studen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21-489.

(2005년 9월 16일 접수, 2005년 11월 26일 채택)